6. 부록
6-1. 제 40회 한국원목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 일시: 2002년 5월 21일(화)-23일(목)
* 장소: 낙산비치호텔
* 주제: 21세기 원목의 지도력
* 강사: 한홍 목사
* 주최: 한국원목협회

어느덧 우리 원목협회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원목협회도 불혹의 나이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보다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기도 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원목협회의 회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된 것은, 새 시대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앞선 안목과 여성 사역자에 대한 기대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연합하여 이루어 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귀한 역사의 한 가운데에 책임을 맡은 회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책임과 병원사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여러분의 단결된 마음으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함께 지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원으로 피택된 저희들은 마음을 합하여 두 가지의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는 회원 여러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자목회』 개정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원목들을 돕기 위하여 쓰인 『병상을 두드리는 목회』로 제목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교우를 돌보는 일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원목협회 40년 역사의 모든 자료들을 전산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자료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CD에 수록함으로써 회원 여러분들이 한층 편리하게 원목협회의 역사를 찾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어느덧 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거인들의 발자국』을 집필하신 한홍 목사님을 초빙하여 원목들의 리더십을 개발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더십의 개발”입니다. 우리 원목들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각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더 한층 전문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의 원목은 단순한 환우의 심방과 전도의 수준을 넘어서 병원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조직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력 있는 사역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즉 신우회의 관리, 병원 직원 및 의료진의 관리, 병원 내의 소집단 운영 및 외부에서 병원에 들어오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관리, 단기선교 팀의 지도 등의 여러 가지 사역을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목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의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상황에 적절한 리더십이 요청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회장으로서 “한국임상목회 교육협회”(Korean Clinical Pastoral Education)에서 주최한 Supervisor 교육 Seminar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원목들이 지속적인 자기실현을 위해 가르치며 배워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1주년이 지났고 앞으로 많은 회원들께서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셔서 한국임상목회가 더 질적 성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매일을 병원사역에 힘쓰시는 회원님들께서 이 기간이나마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의 피로를 씻으시고, 또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총회 및 학술세미나는 동해안 명소 중 하나인 낙산 비치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원목협회 회장: 김정숙 목사